

언어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친과 폭풍의 환유적 의미 확장

최영주* · 김은진**

(조선대)

Choi, Youngju & Kim, Eunjin. (2016). Finding Out Metonymic Meaning Extensions of Neologisms *michin* and *phokphwung* Based on Their Collocational Environmen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4), 261-280. This paper explores various meanings of the words *michin* and *phokphwung*, based on their collocational environment. *Michin*, whose original meaning is 'insane,' recently achieves the positive meaning, 'excellent.' The new meaning is actively used with various types of collocates. The active use of the positive meaning is the result of the A CONCEPT FOR ITS OPPOSITE metonymy. Similarly, *phokphwung*, whose original meaning is 'a big storm,' also achieves a new meaning, 'very big' or 'of great amount' changing its categorical status to an adjective. The meaning change occurs through the metonymy A CATEGORY FOR ITS PROPERTY. The property of a big storm, *very big and strong*, is referred to by the big storm itself. Close examination of their nominal collocates reveals that they extend their meanings further, exploiting other types of metonymies. It also reveals that they happen to merge their meanings to 'excellent' with nominals describing one's appearance, singing and acting ability, and so on.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meanings of *michin* and *phokphwung* are supported b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hich is designed to find out how the two words are distinguished in given contexts.

주제어(Key Words): *michin*, *phokphwung*, collocational environment, collocate, A CONCEPT FOR ITS OPPOSITE metonymy, A CATEGORY FOR ITS PROPERTY metonymy

1. 서론

본 논문은 미친과 폭풍이 최근 형성된 합성어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에 초점

* 제1저자

** 교신저자

을 맞추어서 *미친* 혹은 *폭풍*과 함께 나오는 명사형 연어들을 분류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그 확장된 의미에 어떠한 개념적 환유가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를 위해 *미친*과 *폭풍*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합성어 (compounding)를 통하여 최근 그 의미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미친*과 *폭풍* 합성어의 생성

*미친*은 다음 (1)에 나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서처럼, 동사 *미치다*의 파생어로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보통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의 의미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는’의 의미를 갖고 있다.

(1) 미치다 「동사」

a.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b. 【…에/에게】 ((주로 ‘-에’의 뒤에 쓰여))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다.

(2)의 예문은 *미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중 첫 번째 의미인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보통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의 뜻을 하고 있다.

(2) 서점에 가서 책 한권 가운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일부분만 사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온라인에는 고도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00. 07. 19)

(3)의 두 예문은 *미친*의 두 번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인가에 미쳐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열중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3a)와 (3b)에서 *교과서에 미친* 사람과 *축구에 미친* 혹은 *한국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과도하게 대상에 몰입해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3) a. 이미 대구에서는 2번의 전시회를 통해 유명인사가 돼 있는 그는 18여년 동안 1만2000권의 교과서를 수집해 일명 ‘교과서에 *미친* 사람’이다. 그가 모은 책 중 서울에서 첫 선을 보에게 될 교과서는 화물 트럭 3대분의 2000여권.

(국민일보 01 .07. 16)

b. TV를 통해 본 경기장내의 붉은 물결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국민의 화합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축구에 미친*, *월드컵에 미친* 것보다 *한국에 미친* 진정한 하나됨을 보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02. 06. 10)

(2), (3)의 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미친은 최근 들어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a)의 미친미모는 '대단히 훌륭한 미모'를 뜻하며, (4b)의 미친존재감은 존재가 크게 부각되어 '상대방에게 쉽게 각인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4c)의 미친원발은 '강력한 원발 슈팅 모습'을 묘사한 문구이다.

- (4) a. 한편 넉쿤을 뽑은 네티즌들은 '미친미모 넉쿤은 엉덩이도 섹시할 것이야~', 등의 댓글을 남기며 2PM이 얼마전 '재범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핫한 섹시 아이콘으로서 여성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비엔티뉴스 코리아 09. 09. 16)
- b. 김승우는 '아이리스' 3회까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존재를 각인시키다 4회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폭풍간지, 미친존재감'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오토타임즈 09. 10. 23)
- c. 또한 김승용이 팬들을 위해 '아디다스 베컴광고 패러디'를 패러디했고, '미친원발' 이상협이 무회전 킥에 직접 도전하는 영상도 실렸다.
(스포탈코리아 2009. 06. 15)

미친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친과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최근 미친과 뒤따라 나오는 명사형 언어가 서로 붙어서 합성어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5) a. '듀엣가요제' 솔지, 유재환과 다정한 인증샷 눈길 '미친감성'
(세계일보 16. 02. 09)
- b. '대세 테란' 전태양, 미친전제로 강민수 격파! 1-1 (데일리스포츠 16. 02. 01)

최근 들어 미친과 비슷한 의미 확장을 겪고 있는 단어로 폭풍을 들 수 있다. 폭풍이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나타나듯이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폭풍주의보, 폭풍경보, 폭풍우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나타내는 합성어(compounding)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 (6) 폭풍 「명사」
- a.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
- b. 『지리』=왕바람.

폭풍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바람이기에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서 부정적 상황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폭풍이 몰아칠’ 혹은 ‘폭풍을 불러 일으킬’과 같은 표현은 (7)의 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 좋지 않은 사건이 강렬하게 몰아 닥쳐옴’을 나타내고 있다.

- (7) a. 물론, 당 명예총재인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박태준(朴泰俊) 총재의 당 추스르기 노력으로 파문은 상당부분 진정된 상태지만 8월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연합뉴스 99. 07. 31)
- b. 특히 지난 14일 미 증시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한 그의 발언은 세계증시에 메가톤급 **폭풍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 00. 04. 17)

또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폭풍의 성질을 이용하여, **폭풍같은**이나 **폭풍처럼**의 형태로 명사나 동사 앞에 놓여 ‘매우 강렬하고 파장이 강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8)의 **폭풍같은**은 **반향**은 ‘반향이 일어나는 정도가 매우 크고 강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9)의 **폭풍처럼 확산되고**-의 경우도 비슷하게 ‘투머의 확산정도가 매우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다.

- (8) 평양 및 중앙방송은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적 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같은** 반향이며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다함 없는 신뢰의 표시”라고 반복해서 소개했다. (연합뉴스 97. 10. 07)
- (9)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부산지역 교두보 마련을 위한 대공세속에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한나라당)의 석연찮은 최근 행보를 놓고 온갖 투머가 마치 **폭풍처럼**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95. 05. 03)

그러나 최근 들어 **미친**의 의미가 변하듯이 **폭풍** 또한 의미의 변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다. 다음 (10)의 예문에 나타나듯이 2000년 초에 **폭풍**의 확대된 의미가 들어가는 새로운 합성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0a)에 나오는 **폭풍샷**은 ‘300야드의 장타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샷’을 의미하고 (10b)의 **폭풍저그**는 홍진호라는 프로게이머의 휘몰아치는 전술을 일컫는 것으로 ‘매우 급하고 강렬한 게임전략’ 의미하고 있다.

- (10) a. 300야드 장타·버디쇼·위성미 **폭풍샷** 환호 (서울경제 04. 07. 04)
- b. 최근 막을 내린 코카콜라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 명승부 끝에 3대2로

‘테란의 황제’ 임요환(21)이 우승하며 대회 2연패했지만 정작 인기를 끈 것은 준우승을 한 ‘**폭풍저그**’ 홍진호(20)였다. (동아일보 01. 09. 16)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친*과 *폭풍*이 원래 갖고 있던 부정적 의미를 탈바꿈하여 긍정적 의미로 의미 확장하여 새로운 합성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두 어휘의 합성어에 나타난 언어 환경을 살펴보고, 두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개념적 환유를 통하여 확장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웹 페이지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 나타나 있는 언어환경을 통해 *미친*과 *폭풍*의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웹 페이지의 사용은 그 목적이 예문을 검색하기 위한 것인지 코퍼스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총 단어 수와 같은 코퍼스의 크기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2. 환유

*미친*과 *폭풍*의 의미 확장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인지의미론에서 의미의 확장의 기제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꼽는다. *미친*과 *폭풍*의 의미 확장을 논하기에 앞서, 그 의미 확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적 환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환유란 하나의 개념이 다른 하나의 개념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Radden and Kovecses (1999, p. 21)는 “환유란 매개개념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목표개념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개념에 접근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이상적 인지 모델(Idealized Cognitive Model) 내에서 발생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두 개념이 개념적 인접성을 갖고 있는 경우 하나의 개념이 쉽게 다른 개념을 대신하여 쓰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연필이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라고 말할 때 *연필*은 연필의 일부에 해당하는 *연필심*을 가리킨다. 이 때 *연필*과 *연필심*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매우 인접해있기 때문에 *연필*로 *연필심*을 가리키기 용이하다. 이러한 예는 전체가 부분을 대신하는 환유(WHOLE FOR PART metonymy)이지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환유(PART FOR WHOLE metonymy)의 예도 있다. “*영화계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할 때의 *얼굴*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인접성은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용기와 용기 안의 내용물도 인접해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용기가 내용물을 가리키는 환유나 내용물이 용기를 가리키는 환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잔 할까?*” 혹은 “*한 술만 먹자*”고 할 때 *한 잔*과 *한 술*은 ‘술’과 ‘밥’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기가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대신하는 환유(CONTAINER FOR CONTAINED metonymy)이다. 원인과 결과도 인접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원인이 결과를 지시하는 환유(CAUSE FOR EFFECT metonymy) 나

결과가 원인을 지시하는 환유 (EFFECT FOR CAUSE metonymy)가 활발하게 사용된다. 합성어인 *피땀*은 ‘노력’을 의미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원인을 대신하는 환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어떤 개념과 그 반대 개념 역시 인접해 있다고 본다. 하나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와 상관없는 개념과는 달리 그 반대 개념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극어인 *너무가 너무 --않다*의 형태로 쓰이다가 최근 들어 *너무 너무 좋아요*에서와 같이 긍정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반대 개념을 나타내는 환유 (A CONCEPT FOR ITS OPPOSITE metonymy)’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어떤 개념과 그 것의 속성 또한 인접한 개념이어서 서로를 대신하여 지칭할 수 있다. *황소고집*에서 *황소*는 *황소*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매우 힘세고 강한’을 의미하는데 이는 *황소*라는 ‘하나의 범주를 통해서 그 속성을 나타내는 환유 (A CATEGORY FOR ITS PROPERTY metonymy)’가 작용한 결과이다.

*미친*과 *폭풍*은 마지막에 설명된 두 가지 환유를 통하여 의미 확장을 시작한다. 다음 2장에서는 어떻게 *미친*이 ‘어떤 개념으로 반대 개념을 나타내는 환유’를 통하여 의미 확장을 시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어떻게 *폭풍*이 ‘하나의 범주로 그 속성을 나타내는 환유’를 통하여 의미 확장을 시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친*의 연어와 의미

하나의 어휘가 다른 어휘와 일정한 제약에 따라 공기하거나 연속되어 사용되는 관계를 연어 혹은 연어관계라 일컫는다 (강현화, 1998; 김진해, 1999; 이은경, 2005; 임홍빈, 2005; 임근석, 2011; 임유종, 2011; 최형강, 2012). 강현화 (1998)에서는 연어를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임홍빈 (2005)에서는 연어 관계를 이항적인 어휘간의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기하는 어휘는 의미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를 그와 함께 하는 연어를 통해 정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미친*과 *폭풍*의 의미를 두 어휘와 공기하는 연어들을 분류해 가면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2.1. 우수함

*미친*은 명사 연어와 함께 ‘우수함’의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 *미친*의 원래 의미는 ‘정신이 나간’ 혹은 ‘정상이 아닐 정도로 어디에 심취한’ 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와 정 반대의 의미인 ‘탁월함’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미친*에 뒤따르는 명사 연어가 긍정적 어휘인 경우는 그것의 긍정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대단히 우수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개념이 그 반대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작용의 결과이다. 원래 부정적 의미를 갖는 말이었지만 그와 정 반대인 긍정의 의미를 갖게 된 영어의 *terrific*은 여기에 속하는 예이다 (Vosshagen, 1999:290). *terrific*은 원래의 부정적 의미와 환유에 의해 지시하게 된 긍정의 의미가 섞여서 쓰이다가, 나중에 긍정의 의미로만 쓰이게 된 예이다. 이와 비슷하게 *wicked* 역시 원래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이지만 최근 들어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Urban Dictionary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a)의 *wicked*는 *awesome*을 수식하는 긍정적 부사로 사용되었고 (11b)의 *wicked*는 ‘wonderful’ ‘great’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 a. *wicked*

‘Excellent in any way; potent; strong; capable’

(Wentworth and Flexner, 1967)

b. That party was **wicked** awesome.

c. That party was **wicked**.

(Urban Dictionary)

다음 예를 보면, *미친*은 *wicked*와 비슷하게 원의미인 부정적 의미와, 환유를 통해 획득된 긍정의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a)의 *미친바람*에서 *미친*은 ‘바람의 정도가 너무 거세고 방향성이 없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12b)의 *미친반응*은 ‘놀랍도록 좋은 반응’을 일컫는 말로서 *미친*이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a. **미친 바람**처럼 그대 찾아 떠돌던 방향이 없었다면 영생의 만남을 어찌 기약할 수 있었으리. (미주중앙일보 16. 03. 03)

b. 마짜버거, **미친반응**... 짜왕부터 시작된 프리미엄 (민중의소리 16. 02. 19)

동시에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대개는 언어 환경에 제약을 갖게 마련이다. 같은 어휘가 사용될 경우에도 그 어휘가 갖고 있는 기본 의미로 사용될 때와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의미적 선호성을 갖게 되므로 다른 언어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이다 (Bedneakek, 2008; Bulitz, 1995). 그러므로 원의미와 환유에 의해 확장된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미친*의 경우도 의미에 따라 다른 언어패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수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의 언어패턴을 ‘외모’, ‘음악성’, ‘활동’, ‘능력’, ‘기타 추상개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Urban Dictionary는 영어의 신조어를 모아서 풀이해주는 인터넷 사전이다.

2.1.1 외모

미친 뒤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어는 (13)의 예문에 나타나듯이 *동안*, *기력지*, *턱선*과 같은 외모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외모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 *미친*은 ‘매우 우수한 외모’를 일컫게 된다. (14a), (14b), (14c)의 합성어 예들에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동안*, *기력지*, *턱선* 외에도 *미친*과 함께 오는 외모에 관한 명사는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뒤태*, *복근*, *몸매*, *미모*, *볼륨감*, *비율* 등 외모를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도 최근 대중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관한 어휘가 많다.

- (13) a. ‘치인트’ 박해진, 남다른 교복핏 공개.. 독보적 비주얼로 **미친동안** 입증
(한국경제 16. 01. 25)
b. 이민호, 이런게 공향패션의 정석 **‘미친기력지’** (뉴스엔 16. 01. 07)
c. ‘해피엔딩’ 권율, **미친턱선**... 여심 초토화 (헤럴드경제 16. 01. 28)

- (14) 미친동안, 미친기력지, 미친턱선, 미친뒤태, 미친복근, 미친몸매, 미친미모, 미친볼륨감, 미친비율, 미친비주얼, 미친옆라인, 미친외모, 미친턱선, 미친각선미, 미친섹시, 미친스키니

2.1.2. 음악성 및 연기

미친 뒤에 나오는 언어는 외모외에도 예문 (15)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음*, *음색*, *열연*과 함께 ‘뛰어난 음악성 및 연기’를 나타낸다. 음악성을 보여주는 (15a)의 *미친고음*과 (15b)의 *미친음색*, (15c)의 *미친연기*는 ‘매우 우수한 가창력과 연기력’을 의미한다.

- (15) a. ‘더쇼’ 명불허전 임정희, 가슴 뺨 뚫리는 **‘미친고음’**
(엑스포츠뉴스 16. 03. 08)
b. 태연 ‘Rain’ 8개 음원차트 눈깜짝할 새 1위 휩쓸어 ‘재즈풍...**미친음색**’
(스포츠경향 16. 02. 03)
c. ‘피부사’ 퍼칠갑한 신하균, 사진만으로도 **미친연기** (뉴스엔 16. 03. 29)

- (16) 미친실력, 미친음색, 미친고음, 미친가성, 미친성대, 미친가창력, 미친듀엣, 미친호소력, 미친존재감, 미친바이브레이션, 미친박자의신, 미친발성, 미친무대, 미친악역, 미친진행, 미친연기, 미친열연, 미친댄스, 미친안무

2.1.3. 활동

미친과 활동에 관련된 명사가 함께 오는 경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두드러진 활동’을 의미한다. (17a)의 미친활약은 어떤 선수의 ‘우수한 활약’을 의미하며, (17b)의 미친위닝샷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의 승리로 직결되는 결정적인 우수한 득점’을 나타내며, (17c)의 미친악역은 ‘너무 극적으로 허황된 악인으로의 연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감 있게 극악무도한 악인의 모습을 맛깔스럽게 표현하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격하게 유발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활약, 위닝샷, 악역, 야구 등 스포츠나 정치, 연기, 연극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나타남을 (18)의 합성어를 통해 알 수 있다.

- (17) a. 레버쿠젠 감독 “교체 투입 치차리토 **미친활약**” 치차리토 투입 26분만에 1골
1도움, 볼프스부르크에 3-0승 (뉴스핌 16. 04. 02)
b. 스테판 커리, 3점슛 12개+**미친위닝샷**...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짜릿한 역전... (조선일보 16. 02. 28)
c. 시그널 장현성 ‘악역의 품격’.. “이런 **미친악역** 처음이야” (한국경제 TV 16. 03. 11)

- (18) 미친활약, 미친위닝샷, 미친악역, 미친진행, 미친행보, 미친연기, 미친열연, 미친여행, 미친댄스, 미친안무

2.1.4 능력

미친 뒤에 나오는 연어는 (19)에 나타난 예문에서처럼 연기력, 친화력, 매력이라는 명사와 함께 나타나 ‘그 인물만이 가진 고유의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 (19a)의 미친연기력은 ‘훌륭한 연기력을 나타낸 것’이며, (19b)의 미친친화력은 ‘타인과 잘 융합하여 어울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19c)의 미친매력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압도적인 외모와 완벽한 몸매를 뽐내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에는 그 외 능력에 관련한 의미를 갖는 연어와 결합하는 미친의 예들이 열거되어 있다.

- (19) a. ‘태양의 후예’ 송혜교 납치 비하인드컷, **미친연기력** 포착 (티브이데일리 16. 04. 01)
b. NC에서도 변함 없는 박석민 ‘**미친친화력**’ (스포츠동아 16. 02. 05)
c. 피에스타 예지, ‘**미친매력**의 걸크러시로 DDP를 사로잡다’ (스타데일리뉴스 16. 03. 24)

- (20) 미친연기력, 미친친화력, 미친매력, 미친소화력, 미친진행력, 미친섭외력, 미친집중력, 미친암기력, 미친수비력, 미친공격력, 미친경기력, 미친파워, 미친적응력, 미친인맥, 미친재능, 미친예능감, 미친원발

2.1.5 기타 추상개념

‘외모,’ ‘음악성,’ ‘활동,’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외의 추상개념과도 *미친*은 활발하게 합성어를 형성한다.

- (21) a. 세상을 놀라게 한 **미친스펙** 스마트폰 5 (이코노믹리뷰 16. 03. 07)
 b. ‘검사와외진’ **미친상승세**.. 천만 영화 등극할까 (스포츠투데이 16. 02. 14)
 c. ‘배트맨대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주말 **미친예매율**... 과반수 확보
 (스포츠 투데이 16.03.20)

- (22) 미친예매율, 미친스펙, 미친상승세, 미친시청률, 미친반응, 미친이벤트, 미친조합, 미친매출, 미친케미, 미친홍행, 미친전개, 미친애교, 미친카리스마, 미친호흡, 미친아이디어, 미친연결고리, 미친인맥, 미친입담, 미친파격전개, 미친케미, 미친캐스팅, 미친환급반

2.2 통제 불능

*미친*에 부정적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 연어가 뒤따라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미친*은 매우 강도가 강한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 (23)의 예에서처럼 *긴장감*, *집착*, *끝없이 나오는 배(belly)*는 부정적 의미를 암시하므로, *미친*과 함께 쓰이게 되면 ‘제어가 되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24)의 *미친다이어트주사*, *미친돌직구*, *미친뻘뻘함* 등은 모두 *미친*이 부정적인 명사연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때의 의미 확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친*이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확장되어 ‘우수한’을 의미하게 되었고 다시 ‘우수한’의 의미가 반대로 부정적 의미를 가리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수한’이라는 의미에 ‘어떤 개념이 그 반대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가 사용되어서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둘째, *미친*의 원래 의미에서 확장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제어가 안 되는’이라는 의미는 ‘미친 것’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원인을 통해 그 결과를 나타내는 환유’(CAUSE FOR EFFECT metonymy)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친*이라는 원인이 ‘제어가 안 되는’이라는 결과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 (23) a. '이세돌 vs 알파고'...한국기원까지 **미친긴장감!** (더팩트 16. 03. 09)
 b. '화려한유혹' 김호진, 차예련에 차이고 정신줄 났다... **미친집착** 끝판왕
 (티브이데일리 16. 03. 22)
 c. '백종원의 3대천왕' 예지, 김준현에 디스랩 "끝없이 나오는 **미친배**"
 (아시아 투데이 16. 01. 31)
- (24) 미친긴장감, 미친집착, 미친배, 미친다이어트주사, 미친돌직구, 미친뽀뽀함, 미친
 압박, 미친질주, 미친폭주, 미친흡입력, 미친중독성

2.3 이중의미: '우수함'과 '예상외의 놀라움'

'우수함'을 의미하는 *미친*이 같은 종류의 언어와 결합하지만 문맥에 따라 '예상외로 혹은 기대와 달리 좋은'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25)의 설명처럼, 같은 *미친존재감*도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5)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두 유형의 *미친존재감*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훌륭한 존재감'을 의미하며 마지막 유형은 '우수함'을 의미한다. 첫 번째 두 유형은 실제 출연에서 뛰어난 연기나 우수할 실력을 바탕으로 존재감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다. 전혀 존재감을 획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연예인이 의외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때 *미친*의 의미는 '예상외로 혹은 기대와 달리 좋은'의 의미인 것이다. 이때는 '더 강한 개념이 약한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 (A STRONGER CONCEPT FOR ITS WEAKER CONCEPT metonymy)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친*이라는 극단적인 개념이 그보다는 약한 '예상 밖의'라는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25) 요즘 '**미친존재감**'이 연예계와 대중문화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미친존재감'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티벳궁녀,' '1초 박지선'처럼 드라마 같은 본래 텍스트에서는 존재감이나 중요성,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지만 네티즌이나 시청자들이 캡처해 재가공한 콘텐츠가 눈길을 끌어 강렬한 존재감을 획득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정형돈, 이수근처럼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초반에는 활약을 하지 못하다 특정한 계기나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강렬한 존재감을 심어주는 유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유형은 강렬한 스타성이나 뛰어난 연기력 등으로 드라마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시청자에게 강렬하게 심어주는 연예인이다 (마이데일리 10. 10. 30).

*미친존재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미친*의 '우수함'의 의미와 '예상외로 좋은'이라는 두 의

미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26a)의 *미친소화력*은 ‘누구나 쉽게 어울릴 수 없는 패션 아이템을 훌륭하게 소화하는 패션센스’를 말하고 있다. 반면 (26b)의 *미친소화력*은 다수의 드라마와 예능에서 다소 코믹하고 개구진 이미지로 활약해온 배우가 다양한 옷들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의외의 패셔니스타 면모를 선보이자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뛰어난 패션센스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26) a. 김새론,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션 ‘**미친소화력**’ (뉴스엔 16. 02. 29)
 b. 배우 김기방의 일상 패션이 화제, **미친소화력!** (시선뉴스 15. 12. 11)

(27a)의 *미친재능*은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두 진행자가 또렷한 발음과 몸짓으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전문 진행자로 변모하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감탄사를 안길 정도로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와 반대로 (27b)의 *미친재능*은 ‘별 기대 없었던 한 선수가 예상외의 우수한 실력을 보여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27) a. 박진경 피디는 “**미친재능...**, 이들보다 진행을 잘할 자신이 없다”는 어느 트위터 멘션을 리트윗(전파)했다. (한겨레 16. 01. 12)
 b. ‘**미친재능**’이라고 불리며 축구명문 고려대학교로 진학한 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올 시즌 입단한 김건희 선수 (인터풋볼 16. 05. 19)

(28a)의 *미친케미*는 ‘뛰어난 연기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조화’를 나타내며, (28b)의 *미친케미*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두 인물이 의외의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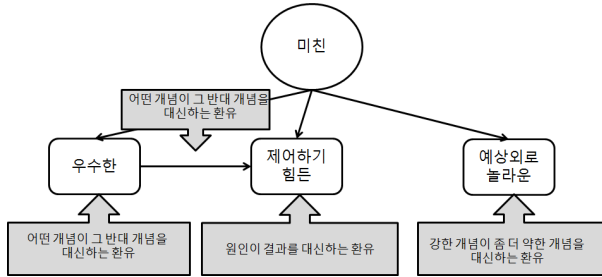
- (28) a. 주연 배우 이제훈의 뛰어난 연기와 아역배우들의 ‘**미친케미**’를 보이며 영화를 본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시아뉴스통신 16. 05. 14)
 b. ‘무한도전’ 아이유, 박명수 갈등 끝났다... 이런 **미친케미** 처음이지? 이상하게 땡겨 (스포츠동아 15. 08. 02)

2.4 환유적 확장

지금까지 논의한 *미친*의 환유적 의미 확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미친*은 ‘우수한’, ‘제어하기 힘든’, ‘예상외로 놀라운’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모두 *미친*의 원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제어하기 힘든’의 의미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친*에서 ‘원인이 결과를 대신하

는 환유'를 통해 직접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한 가지이며, '우수한'의 의미에서 '어떤 개념이 그 반대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를 통해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다른 하나이다.



〈도표 1〉 미친의 의미확장과 의미확장에 사용된 환유

3. 폭풍의 연어와 의미

3.1 강렬함

비록 폭풍과 미친이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확장을 동일하게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폭풍은 미친과는 다른 환유를 통해서 의미가 확장된다. 폭풍은 폭풍이라는 명사가 그 속성을 가리키는 환유 (CATEGORY FOR ITS PROPERTY metonymy)를 통해 의미가 '대단히 크고 강렬한'으로 확장되어, 명사가 형용사로 범주전환이 된 경우이다. (29a)의 폭풍독설은 '강력한 독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29b)의 폭풍세수는 세수하는 모습이 '보통 세수와는 다른 매우 큰 활동임'을 암시하고 있다. (29c)의 폭풍하트발사는 손가락 하트모양을 보내주는 '행동이 놀랍도록 크고 강력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 외 '강렬한'을 의미하는 폭풍과 결합하는 명사 연어의 종류가 (30)에 열거되어 있다.

- (29) a. 이경규가 김수미의 '폭풍독설'에 혀를 내들었다. (TV리포트 15. 07. 31)
- b. '마리텔' 샤이니 키, 폭풍세수로 민낯 공개+팬더 팩 '폭소'
(OSEN 15. 05. 31)
- c. 비투비(BTOB) 이민혁, '폭풍하트 발사' (투스타뉴스 16. 03. 10)

- (30) 폭풍갈등, 폭풍감격, 폭풍감동, 폭풍감정, 폭풍감탄, 폭풍걱정, 폭풍견제, 폭풍구박, 폭풍끼임, 폭풍놀림, 폭풍당황, 폭풍돌격, 폭풍돌직구, 폭풍돌파, 폭풍디스, 폭풍따귀, 폭풍랩배틀, 폭풍막장, 폭풍만족, 폭풍말다툼, 폭풍맛대결, 폭풍머방,

폭풍물싸대기, 폭풍미친짓, 폭풍분노, 폭풍불만, 폭풍비난, 폭풍사랑고백, 폭풍설
레임, 폭풍세일, 폭풍셀카

3.2 다량

폭풍은 ‘크고 강력함이라는 속성’외에도 ‘짧은 기간 동안 비바람이 매우 위력적으로 불어 닥쳐 파괴력이 크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 확장에 있어서도 ‘한 번의 강력 한 행동’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으로’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 어 (31a)의 폭풍감량은 ‘많은 몸무게를 단기간 감량 했다’는 의미이며, (31b)의 폭풍하소연은 ‘자신의 고충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하소연한 것’을 나타낸다. (31c)의 폭풍SNS는 ‘SNS 계정 에 자신들의 사진을 짧은 기간 동안 다량으로 업데이트한 것’을 의미한다. (32) 합성어들에 나오는 폭풍은 모두 폭풍의 두 번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31) a. 박보람은 11일 방송된 tvN ‘명단공개’에서 **폭풍감량**으로 다이어트 유발자 6
위를 차지했다. (MBN 16. 01. 13)
b. ‘동상이몽’ 정시아 “우리 애가 요즘 말을 안 들어” **폭풍하소연**
(뉴스엔 16. 04. 04)
c. 빅뱅, 월드투어 대성공 자축.. **폭풍SNS**로 ‘팬서비스쪽’ (OSEN 16. 03. 08)
- (32) 폭풍10언더파, 폭풍4골, 폭풍대사, 폭풍대사랑, 폭풍매도, 폭풍매수, 폭풍상승세,
폭풍샷, 폭풍선제공, 폭풍성장세, 폭풍식탐, 폭풍애원, 폭풍애정, 폭풍야식, 폭풍
연습, 폭풍운동, 폭풍자랑, 폭풍질문, 폭풍질투, 폭풍찬양, 폭풍체짱질, 폭풍클릭,
폭풍토로, 폭풍통곡, 폭풍팬덤, 폭풍하소연, 폭풍대립, 폭풍대시, 폭풍드리블, 폭
풍설사, 폭풍쇼핑, 폭풍수다, 폭풍숙면, 폭풍야근

3.3 우수함

폭풍도 *미친*과 같이 ‘우수함’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다른 확장된 의미보다 가장 최근 에 나타난 의미로 그 예를 웹에 나타난 뉴스 기사에서 찾으면 2015년과 2016년의 예가 주 를 이룬다. ‘강렬한’의 의미와 ‘다량’의 의미가 ‘우수함’으로 확장되는 것은 ‘양으로 질을 대신 하는 환유’ (QUANTITY FOR QUALITY metonymy), 혹은 ‘힘의 세기로 질을 대신하는 환유’ (STRENGTH FOR QUALITY metonymy)에 의한 것이다. 이 환유를 통하여 많은 양이나 강한 힘이 질적으로 우수함을 나타내게 된다. 폭풍이 ‘매우 우수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의 연어패턴을 ‘외모’, ‘음악성’, ‘연기’, ‘기타 추상개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3.3.1 외모

본래 외모에 관련된 명사는 *미친* 뒤에 나오는 대표적인 연어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33)과 (34)에 나타나 있듯이 외모에 대한 명사들이 *폭풍*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 ‘매우 우수한 외모’라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33)의 예들에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34a)의 *폭풍눈웃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우 우수한 눈웃음’이며, (34b)의 *폭풍후광*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외모’를 나타낸다. (34c)의 *폭풍몸매*는 ‘매우 매력적인 몸매’를 가리키고 있다.

- (33) a. 원빈, 새 CF로 **폭풍눈웃음** 공개 “네가 더 예뻐” 누리꾼 마음도 ‘술렁’
(티브이데일리 10. 11. 16)
b. 이다희, 앉아만 있어도 **폭풍후광**... 끊어질 듯 가녀린 발목 ‘혁’
(컨슈머타임스 15. 03. 10)
c. 역시 송혜교! 동공지진 일으키는 **폭풍몸매** (기사위크 16. 03. 16)

(34) *폭풍눈웃음*, *폭풍미소*, *폭풍몸매*, *폭풍동안*, *폭풍매력*, *폭풍반전매력*, *폭풍블름감*, *폭풍간지*, *폭풍후광*, *폭풍섹시*

3.1.2 음악성 혹은 연기

*미친*의 연어로 ‘음악성’과 ‘연기’에 관련된 명사가 다수 사용된 것처럼 *폭풍*에도 ‘음악성’과 ‘연기’에 관련된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35a)의 *폭풍가창력*과 (35b)의 *폭풍라이브*는 ‘뛰어난 가창력’을 의미하며 (35c)의 *폭풍존재감*과 (35d)의 *폭풍연기력*은 ‘훌륭한 연기로 인해 주목을 받고, 이목을 끄는 것’을 의미한다.

- (35) a. 임정희가 약 3년만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 **폭풍가창력**을 선보인다.
(한국경제 16. 03. 11)
b.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폭풍라이브** 열창... 역시 명곡이야
(경기일보 15. 10. 22)
c. ‘시그널’ 조진웅 짝사랑 이시아 누구? 죽는 순간까지 **폭풍존재감**
(뉴스엔 16. 01. 31)
d. 박신양 is 뭔들, 60분 씹어삼킨 **폭풍연기력** (뉴스1 16. 03. 29)

(36) *폭풍가창력*, *폭풍라이브*, *폭풍존재감*, *폭풍연기력*, *폭풍래퍼*, *폭풍성량*, *폭풍연기*, *폭풍열연*, *폭풍듀엣*, *폭풍가창력*, *폭풍키스신*

3.1.3. 기타 추상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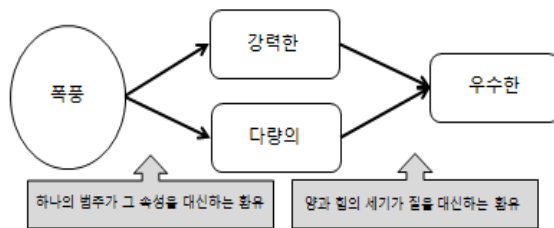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외모’, ‘가창력’, ‘연기력’ 외에도 (37)의 예문에서처럼 *두뇌회전*, *발전 에너지*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는 명사를 연어로 취하여 ‘우수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37) a. ‘꽃청춘’ 회계 고경표, **폭풍두뇌회전** 텐트구매 결정 (뉴스엔 16. 03. 04)
- b. 남태현 **폭풍발전** ‘우리 태현이가 달라졌어요’ (enews24 16. 02. 26)
- c. ‘장영실’ 송일국, 촬영 강행군에도 **폭풍에너지** 발산 (한국경제 16. 01. 23)

- (38) 폭풍두뇌회전, 폭풍발전, 폭풍에너지, 폭풍대세남, 폭풍드립, 폭풍로맨스, 폭풍매너, 폭풍브로맨스, 폭풍애교, 폭풍홍행, 폭풍자기관리

3.4 환유적 확장

지금까지 논의한 폭풍의 환유적 의미 확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폭풍의 의미가 ‘다량의 비바람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폭풍이라는 범주를 통해 그 속성을 대신하는 환유를 통해 ‘다량’의와 ‘강렬한’의 의미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폭풍은 ‘질적으로 우수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힘과 양의 크기로 질적 우수성을 대신하는 환유’에 의한 것이다. 다음 <도표2>에 환유적 확장이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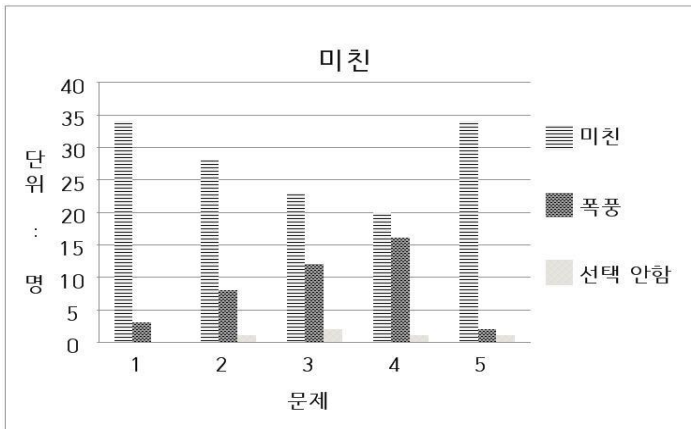


<도표 2> 폭풍의 의미확장과 의미확장에 사용된 환유

4. 미친과 폭풍의 의미적 유사성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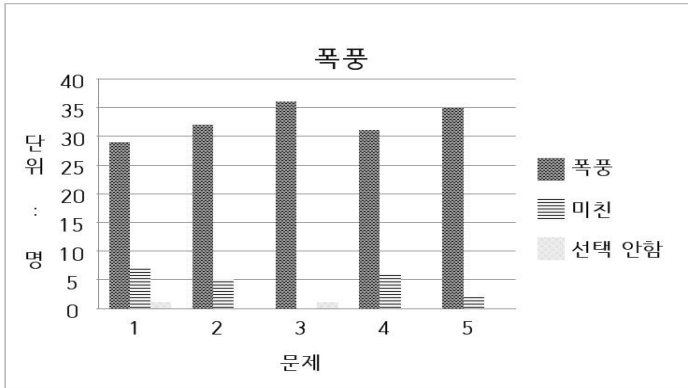
폭풍과 미친 의미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모국어 화자로서 직관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4월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호남지역 C 대학 영문과 3학년 재

학생 중 남성 16명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령대는 20세에서 25세까지 다양하였다). 먼저 미친의 폭풍과 구별되는 두 개의 의미 중 '예상외로 우수함'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고 미친과 폭풍 중 어울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였다. (폭풍/미친) 가격, (폭풍/미친) 체력, (폭풍/미친) 투표율, (폭풍/미친) 환급반, (폭풍/미친) 약역을 포함하는 다섯 개의 문장이 제시 되었는데,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미친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 <도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폭풍/미친)환급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친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37명의 학생들 중 미친가격에서 미친을 선택한 학생은 34명이었지만 폭풍을 선택한 학생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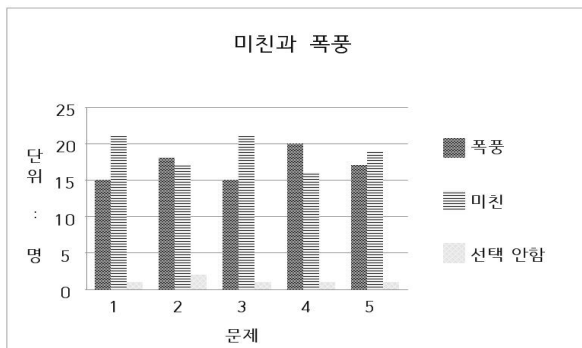
<도표 3> 미친의 폭풍과 구별되는 의미 (예상외로 우수함)

비슷하게 폭풍의 의미 중 미친과 구별되는 '다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예문들에서 폭풍과 미친을 고르는 다섯 문항, 즉 (폭풍/미친) 감량, (폭풍/미친) 클릭, (폭풍/미친) 하소연, (폭풍/미친) 운동, (폭풍/미친) SNS이 포함되는 다섯 문장을 제시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미친보다는 폭풍을 선택한 것을 <도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폭풍하소연은 총 37명 중 36명이 선택하여 미친과 구별되는 폭풍의 쓰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4〉 폭풍의 미친과 구별되는 의미 (다량)

미친과 폭풍이 공통으로 의미하고 있는 '우수함'에 대해서 한국인 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해 두 어휘가 '우수함'의 의미를 갖는 경우인 (폭풍/미친)연기, (폭풍/미친)댄스, (폭풍/미친)듀엣, (폭풍/미친)카리스마, (폭풍/미친)매력을 포함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도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어 '연기'에 대해서 폭풍을 선택한 학생은 15명이었고, 미친을 선택한 학생은 21명이였다. 다른 문항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학생들이 폭풍과 미친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고 있어서, 미친과 폭풍이 의미적으로 병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표 5〉 미친과 폭풍이 동일하게 '우수함'을 의미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미친과 폭풍의 의미 분류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미친과 폭풍이 서로 다른 의미일 때, 서로 다른 명사 연어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상외로 우수함'을 의미하는 명사 연어나 문맥이 주어진 경우는, 많은 피실험자들이 미친을 선택하였으며, '다량'의 의미를 의미하는 명사 연어나 문맥이 주어진 경우는 폭풍을 대부분 선택하였

다. *미친*과 *폭풍*의 의미가 둘 다 ‘우수함’을 나타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명사언어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미친*과 *폭풍*의 횡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친*과 *폭풍*의 의미가 어떻게 환유적으로 확장되는가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친*은 ‘우수한,’ ‘제어하기 힘든,’ ‘예상외로 놀라운’의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친몸매*는 ‘대단히 훌륭한 몸매’를, *미친다이어트주사*는 ‘제어할 수 없이 계속 맞게 되는 다이어트 주사’를 의미하며, *미친재능*은 ‘대단히 훌륭한 재능’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문맥에 따라 재능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았지만 ‘예상외로 놀랍게 재능’을 보이는 경우 사용된다. ‘*미친*’의 의미가 ‘우수한’의 의미로 확장될 때는 ‘어떤 개념이 그 반대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로 인한 것이며 ‘제어하기 힘든’의 의미로 확장될 때는 ‘원인이 결과를 대신하는 환유’로 인한 것이다. ‘예상외로 놀라운’의 의미로 확장될 때는 ‘강한 개념이 좀 더 약한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로 인한 것이다.

*폭풍*은 ‘다량의,’ ‘강렬한’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아주 최근 들어 *미친*과 동일하게 ‘우수한’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폭풍*의 의미가 ‘다량의 비바람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폭풍*이라는 범주를 통해 그 속성을 대신하는 환유를 통해 ‘다량의’와 ‘강렬한’의 의미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폭풍*은 ‘질적으로 우수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힘과 양의 크기로 질적 우수성을 대신하는 환유’에 의한 것이다.

*폭풍*과 *미친*은 둘 다 ‘우수함’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 공동의 언어를 갖게 된다. 그러나 *미친*동언과 *폭풍*동언의 의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폭풍*동언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반면, *미친*동언은 ‘상대를 미치게 할 정도의 우수성,’ 즉 ‘매우 이기적인 우수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친*이 ‘어떤 개념이 그 반대개념을 대신하는 환유’에 의해서 확장되어서 ‘우수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원인을 대신하는 환유’(EFFECT FOR CAUSE metonymy)도 작용하여 ‘상대를 미치게 할 정도로 우수한’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쳤다’라는 결과가 ‘미치게 하는’이라는 원인을 대신하여 *미친*이 ‘미치게 하는’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미친*에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게 되게 된다. 그 결과 두 어휘가 같은 의미로 합쳐져서 ‘우수함’의 의미를 갖는 반면, 둘 사이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최근 *미친*과 *폭풍*의 의미확장에 주목하고 이러한 의미 확장이 어떤 환유작용에 의해 진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의미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예상외로 놀라운’과 같은 의미는 함의(implicature)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명확한 의미 분류 기준과 다양한 의미 확장 기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현화. (1998). [채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8, 191-224.
- 김진해. (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4, 239-279.
- 임근석. (2011).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61, 359-387.
- 임유중. (2011). 연어의 개념과 범주 한정지 제 문제. *국제어문*, 36, 145-181.
- 임홍빈. (2005).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279-320.
- 이윤경. (2009). 코퍼스 기반 한국 대학생의 어휘적 연어 능력 연구. *현대문법연구*, 57, 245-266.
- 이은경. (2005).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적 연어 구성. *한국어의미학*, 17, 177-205.
- 최형강. (2012). 연어의 논항과 의미역 -“명사+부리다” 연어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7, 357-382.
- Bednarek, M. (2008). Semantic preference and semantic prosody Re-examined. *Corpus Linguistics & Linguistic Theory* 4.(2), 119-139.
- Bublitz, W. (1995). Semantic prosody and cohesive company: Somewhat predictable. *General and Theoretical Papers* 247, 1-23.
- Radden, G. & Kovecses, Z. (1999).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In K. Panther & G. Radden (Eds.),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pp.17-59).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entworth, H. & Flexner, S. (1967).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New York: Crowell.

최영주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ychoi1@chosun.ac.kr

김은진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전화: 010-5746-1616
이메일: eunjinojuly@chosun.kr

Received on July 14,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1, 2016

Accepted on December 30, 2016